

##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 적당히 낮설고 적당히 익숙한 그곳 — 광장

박수경

익숙하지 않은 공기의 감촉과 냄새, 그리고 똑같은 태양이건만 살결에 달리 와 닿는 햇살은 낯선 공간으로 나를 밀어 넣는다. 낯선 장소에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은 길거리 간판의 해독할 수 없는 문자와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만큼이나 후각과 촉각이 발돋움을 할 때이다. 내가 서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싶어 현기증이 날 때는 장소가 바뀌었음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시각과 청각 대신 후각이나 촉각 그리고 미각이 가늘게 떨리는 때이다. 그래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주는 해방감은 단순히 신기하고 낯선 곳에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나의 감각이 열리는 순간에서 오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장소의 변화만큼이나 그 장소가 내 몸을 바꾸는 순간이 카타르시스로 찾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장소를 경험한다.

동시에 여행의 기쁨은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낯설고 신기한 장소에서 발견하는 익숙함이 안겨주는 안도에서 오기도 한다. 낯설 속의 익숙함은 낯설을 극대화 하거나, 낯설 속에 엉겨 붙어 있는 두려움을 다독인다. 흔히 하는 말,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뭘’은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사는구나 싶은 감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람 사는 곳이니 별일 있겠냐 싶은 안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감탄과 안도로부터 그 장소를 살피고, 애착을 가지고, 나와 그 장소의 관계의 끈을 묶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그들이 떠나온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여전히 ‘나의 거주지와 다름없는’ 곳을 무의식적으로 찾기도 한다. 그들이 살아온 장소와 그들이 부대꼈던 사람들이 다르니 어디에서, 무엇에서 해방감을 느끼거나 익숙함을 찾아내느냐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여행객은 낯섦과 익숙함, 해방감과 안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러나 종종 나의 감각은 고스란히 달아두고 경관의 전환에만 의지해도, 흔히 여행의 미덕 또는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낯선 곳에서의 해방감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곤 한다. 그럴 때는 여전히 시각이 내 감각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시각에 호소하는 장소(대부분은 역사의 어느 장면에서 웅장함과 권위를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이다. 대부분의 여행객자의 앞면을 채우고 있을 것이다)에서 뭔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몸이 깨어나는 카타르시스에 내 몸을 열어, 그 장소를 만들어내는 의미를 잡아채려할 때 경험하게 된다. 그런 순간은 많은 준비와 시간과 집중,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연이라는 양념이 뿌려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역설은 나에게 가장 익숙한 감각인 시각이 주는 만족과 안도가 있어야, 다른 감각을 일깨울 준비와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쩌면 안도란 시각적 익숙함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각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한 걸음의 도약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두 번을 뛰어 그곳으로 갔다. 첫걸음은 한국어 사회에서 스페인어 사회로, 두 번째 걸음은 스페인어를 사용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 다른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건너갔다. 한국에서 멕시코로, 멕시코에서 남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로. 첫 번째 도약이 두 번째보다 더 넓은 보폭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버둥거리는 내 손을 잡고 안도시켜줄 만한 것도 없었다. 그래서 아마 두리번거리기에 만 바빴던 것 같다. 결국 낯섦이 주는 해방감도, 익숙함이 주는 안도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찾아냈다.

밤늦게 멕시코에 도착한 후, 다음날 아침 처음 본 멕시코는 광장 소칼로였다. 무겁게 내려앉은 듯한 짙은 회색빛 건물들을 거느린 채 말끔하게 포장되어 탁 트인 광장이었다. 한국, 특히 서울은 공간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각박한 곳이다. 산도 많고 사람도 많은 이곳에서 용도가 정해지지 않



아마 이 사진(멕시코 과나후아토)에서 우리의 시선은 몇 개의 건물에 머물 것이며, 그 점들을 이은 선이 그날 여행의 동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선을 따라 오르막길을 오르며 험 험거리고 나면, 그리고 길거리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제야 점과 선이 아닌 공간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필자 사진)

은(또는 다용도의) 너른 공터를 갖는다는 것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호사는 아니었다. 최근에 새로 조성된 광장들조차 광장의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빌딩 틈 사이로 빼죽이 겨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지만 도시에서 공간의 사치를 누려본 적 없는 한국 사람들에게 도시 중앙부를 광장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멕시코의 하늘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 분명 새파랗다 못해 짙하고 균열이 갈 것 같은 맑은 하늘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낮선 장소를 다시 불러내는 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하늘이지만 그날 내가 본 낮선 멕시코는 광장에 있었다.

하지만 멕시코의 소칼로를 탁 트인 광장이라기보다 그저 내 생활공간의 일부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시내 나들이의 경유지로 여기게 된 후에야 나는 그곳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곳은 탁 트인 광장일 뿐 만



멕시코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광장 소칼로와 팔라시오 나시오날(Palacio Nacional). 텅 빈 광장은 늘 꿈틀거린다.(필자 사진)

아니라 그곳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또는 그곳으로 수렴되는) 블록을 이루는 건물들과 바둑판처럼 뻗어있는 거리와 그 장소들을 따라 흘러가는 인파가 한 덩어리를 이루는 공간이다. 첫 만남에서는 낯선 풍경들을 카메라에 한 컷 한 컷 담지만, 그 풍경을 장소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블록을 이루는 높은 벽면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안마당(patio)라는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이 나타난다는 투시감을 갖게 되고, 거리의 악사가 태엽을 돌리는 오르골의 음악에 귀가 열리고, 깃털 장식을 하고 원주민 전통춤을 추는 이들이 피우는 향냄새를 알아차리게 되는 때이다.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시선을 끄는 넓은 광장에 와 있구나 하는 대신 이 낯선 공간에 밀려들어 왔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소칼로보다 더 넓고 더 트여 있고, 그래서 더 신선함을 주는 광장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시각에 의지하는 환호는 언제나 꼬리를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고, 더 섬세하고, 더 크고

높은 경관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하지만 그러한 시각적 심상에 다른 감각들을 조금만 열어보면 그 장소는 나를 낯설게 만든다.

새로운 곳에서 맞이하는 며칠은 주눅거리지만, 활짝 열려있다. 그리고 그곳에 익숙해지면 몸은 가다듬어 지고, 감각은 날을 세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까지다. 날 선 감각은 열리지 못하고 녹슨다. 우리가 자꾸만 낯선 것에만 호기심을 두는 까닭이다. 죄 없는 익숙함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외면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그냥 ‘그곳’이 된다. 소칼로가 그냥 ‘거기’가 될 무렵 다행히 멕시코의 다른 지역들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로 두 번째 걸음을 디뎠다. 그리고 날 선 감각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어느 도시에나 광장이 있기 때문이다. 익숙해져버린 광장을 낯선 공간으로 만날 수 있는 데자뷰 같은 것이랄까.

멕시코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도시에 광장이 있는 이유는 스페인의 도시계획이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신세계(!)에도 신의 뜻을 따르는 질서정연한 인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 종교적 강박의 표현이었다. 16세기 중반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원주민 거주지를 평지의 마을로 재배치하면서, 성당과 관청을 중심으로 재편성 하게 된다. 그러한 공간의 재배치는 가톨릭과 식민 지배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어느 도시의 지역박물관을 방문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에 의해 도시가 설립되었는지 그 도시의 시작을 ‘사건’으로 전달 받게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그 날짜는 스페인인들이 어느 성인이나 성모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이 때 도시란 곧 성당이자 광장이다), 그 다음 스페인 국왕에게 도시의 이름을 하사받고, 도시로서 지위를 수여 받은 날이다. 사실 예로부터 그 장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도시’의 출현으로 그 장소에 대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멕시코시티의 소칼로가 옛 테노치티틀란의 대신전(Templo Mayor)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페루 쿠스코의 아르마스 광장도 옛 잉카인의 광장이었다. 다만, 정복 이후 스페인식





페루 쿠스코 시가지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형적인 도시 형태로, 성당과 관청이 면해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격자형으로 배치된 □자 형태의 건물과 안마당을 볼 수 있다.(필자 사진)

건물이 광장에 한쪽에 들어서고, 그 때문에 본래 광장 일부가 다른 작은 광장 두 개로 떨어져나가면서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었다. 공동체는 장소의 정체성을 정하고, 그 장소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단단히 만드는 법이다. 그렇게 옛 광장을 새 광장으로 덧댄 곳에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둘러싸고 고단하고 힘겨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대도시의 하위 행정구역의 공간 구성도 유사하다.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한 면에는 대성당, 다른 한 면에는 팔라시오 나시오날, 또 다른 면에는 상점가가 있다. 성당, 관청, 상점가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는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멕시코시티에서 메리다까지 동일한 패턴이다. 라틴아메리카라는 거대하고 유서 깊은 세계는 반복 속의 낮설 또는 낮설 속의 동일성이라는 패턴을 여러 곳에 숨기고 있는데, 광장만큼 그런 패턴을 잘 보여주는 장소는 없다.

그래서 준비 없이 떠난 여행에서 믿는 구석이 생긴다. 낯선 장소에 떨

구어저도 익숙한 광장에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때로는 초라하고 웅색한 쓸쓸한 광장일 수도, 때로는 멕시코시티의 소칼로나 콜롬비아 보고타처럼 이곳이 정말 중심이구나 싶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곳은 늘 여행의 출발점이다. 여행객에게 여행지의 공간은 일단 중앙광장이다.

광장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본다. 아마도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을 성당은 그날의 첫 방문지가 될 테고, 양옆으로 그득 메우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정부청사에 내걸린 국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또 다른 한켠에 늘어선 상점가 노천카페에서 커피 한잔이나 아이스크림으로 한껏 여행기분을 낼 것이다. 여행자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하고 익숙한 패턴과 공간구조 안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낯선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멕시코의 어느 도시에서였던가, 별다른 준비 없이 떠난 여행을 수습하느라 길을 헤매다가 사람들에게 소칼로가 어디냐고 물었다. 광장(Plaza)을 찾는 거냐는 질문이 되돌아왔다. 여기서 광장은 일종의 고유명이며, 센트로라 불리는 중심 시가지의 동의어이기도 하다. 소칼로는 사실 멕시코시티 중앙광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정식명칭은 헌법광장(Plaza de la Constitución)이다. 같은 패턴으로 무수히 반복되는 광장은 사실 대광장(plaza mayor), 아르마스 광장(plaza de armas) 등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각국 수도의 중앙광장일수록 헌법광장(Plaza de la Constitución, 멕시코시티)이니, 5월광장(Plaza de mayo,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이니, 볼리바르광장(Plaza de Bolívar, 콜롬비아의 보고타)이니, 독립광장(Plaza de Independencia, 에콰도르의 키토)이니 하는 국가상징물에 걸맞은 이름을 거느리고 있다. 당연히 그 공간과 밀착된 사람, 기억, 역사, 사건의 흔적이다.

소칼로는 기단(基壇), 주춧돌이라는 뜻이다. 멕시코시티의 중앙광장이 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다. 멕시코의 독립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다는 계획으로 단이 마련됐지만, 결국 기단만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아마 너른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정표 구실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광장을 모두 소칼로, 즉 주춧돌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을 생각하며 소칼로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보면, 마치 거대한

사각 평면을 하나의 점으로 압축해버리는 기분이다.

나는 오랫동안 소칼로라는 단어를 광장의 의미로 이해했다. 그것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든, 그 광장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든, 내게 익숙한 ‘그 곳’ ‘거기’는 소칼로였다.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 여러 도시들은 광장을 소칼로라고 부른다. 그 모든 광장에 주춧돌이 있었거나, 주춧돌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말이다.

스페인 방식을 따라 건설된 그런 광장 가운데 많은 곳이 여전히 아르마스광장(plaza de armas)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리마, 쿠스코, 카하마르카 등 대부분 페루 도시와 칠레 산티아고의 중앙광장도 그렇게 부른다. 무기라는 뜻의 아르마스를 붙이는 이유는 군대가 출정식을 가지던 곳이기 때문이다. 광장 한 면을 차지하는 관청에는 국기나 도시의 휘장이 나부꼈을 것이고, 그곳이 상징하는 세속권력이 군대를 소집했을 것이다. 그 군대는 관청과 모서리를 맞대고 있는 성당을 바라보며 신의 이름으로, 신의 가호를 빌며 출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이 건설한 식민지에서 그 광장은 군대를 배웅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전리품에 가깝다. 군대든 수도회든 스페인인이 한걸음씩 영향력을 넓혀나가면서 닦은 기반, 그것이 광장이기 때문이다. 군대의 출정식을 거행하기보다는 승리한 군대가 터를 닦았을 그곳의 이름도 여전히 아르마스광장이다.

익숙해져버린 광장에서 그렇게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아마 모든 여행 가이드북 첫머리에 수도의 광장이 나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광장은 멕시코시티의 소칼로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5월 광장 같이 모두의 주목을 받는 명소만은 아니다. 다만, 그냥 광장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줄곧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통로이자 그들이 경험하는 장소이다. 소도시든 대도시든 광장은 어디에나 있는 익숙한 장소지만, 광장에 가면 이 곳이 얼마나 낯선 곳인지 알 수 있다.

광장의 아침은 그곳의 하늘을 가장 잘 볼 있는 곳이고, 그곳의 햇살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싸는지 알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는 곳이고, 공기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다. 그래서 광장이라는 익숙한 장소에서 그 장소





페루 쿠스코 아르마스광장(필자 사진)

와 깊이 연루되어 있는 낯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애를 써본다면, 이 장소를 경험하는 내부인이 광장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장소를 찾은 외부인이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고 광장을 방문하는지 탐색해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광장에 우두커니 선 나는, 정원으로 가꾸어진 광장 벤치에 앉은 나는, 성당을 카메라에 모두 담아보려고 구도를 맞추는데 열중하는 나는, 이 광장에서 사방으로 뻗은 어느 길로 가볼까 망설이는 나는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낯선 장소에서 익숙한 세계를 찾는 것, 반대로 익숙한 장소에서 낯선 세계를 만나는 것 두 가지 모두 마치 요요놀이와도 같다. 낯섦이 주는 호기심과 해방감을 찾아 뛰쳐나갔다가 긴장으로 팽팽해진 줄은 되감겨 다시 내 손안으로 돌아온다. 익숙함으로 느슨해진 끈은 한 번의 당김으로 새로운 획을 긋는다. 내 손으로 가지고 놀지만, 언제나 정확히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지만, 당황스럽지 않



볼리비아 라파스의 무리요광장(필자 사진)

은 적당한 우연이 가져다주는 놀라움 같은 것이다. 나는 여행에서 그런 놀라움을 기대한다. 사실 이 까다로운 기대는 내가 까다로운 취향을 가졌기 때문에 갈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낯선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만난 즐거움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광장에서 광장으로 돌아다니며 나는 내가 무엇을 즐기는지 아는 여행자가 되었다.

박수경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